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다진 우애,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우들과의 만남

국제진료센터 최종민 코디네이터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우들을 만나 치료후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우애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는 환우의 소개로 만난 현지인들에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소개하고 진료 및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단순히 환우와 병원의 입장이 아닌, 환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신 성장동력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발맞추어 국제 진료 사업이 러시아 지역에서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현지인들에게 본원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진행 할 계획이다.



02 원당역에서 함께하는 건강한 출근길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진료 실시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은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하철로 출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및 오미자차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사상체질과 배효상 교수, 간호사 등의 의료진과 행정직원이 참여하여 약 100명에게 혈압, 혈당, 사상체질검사 등의 진료를 해 주었고,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약 2,000여명의 시민에게 시원한 오미자차와 함께 부채도 무료로 나누어 주어 출근하는 시민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진료를 받고 있다는 한 시민은 “바쁜 아침에 무료진료와 차서비스를 해 주어 너무 고맙고 병원에서 다시 보자”며 전철을 타고 출근하기도 했다.



03 미션타임 콘테스트 우승팀 선정 및 시상

2013년 Happy Hospital 시즌 6 캠페인에서 실시되었던 부서간 미션타임 콘테스트 우승팀을 선정하여 9월 정례조회에서 상장과 금일봉을 수여했다.

미션 콘테스트는 7월 한달 동안 병원 내 2개 부서가 1팀이 되어 부서간 친목도모를 위한 화합 활동을 하는 미션이었으며, 우승팀 선정은 8월 27일 환우와 내원객들의 공정한 투표로 선정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미션 콘테스트는 참가한 총 24개팀 중 헌혈(기증), 볼링, 회식으로 화합을 이루어낸 '82병동·기획예산팀·QI실'팀이 78표를 얻어 1등을 차지했으며 고봉산등반과 부서회식을 한 '72병동·원무팀'이 74표를 얻어 2등을 차지했다.



하계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소감문 당선작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봉사활동

일산대진고등학교 1학년 전예진

CS경영팀으로 배치 받은 후 처음 들었던 생각은 형광등 불빛 없이는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지 궁금해 하고 있던 때 담당자 선생님께서로부터 5일동안 'Happy Hospital'이라는 병원 캠페인 진행보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자들에게 궁중차와 오미자차를 대접하는 것과 손 마사지 교육을 받고 봉사에 참여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봉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저에게 손 마사지를 받은 환자분께서 찾아오셔서 어제 손 마사지를 받고 나니 기분이 좋았으며 저에게 칭찬을 하셨기에 더욱 열심히 손 마사지를 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많은 분들에게 마사지를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한분 한분에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순식간에 봉사가 끝났습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종이 자르기와 차트 정리 등 비교적 단순한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환자 분들을 직접 대해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땀 흘리며 고생한 만큼 이번에는 진정한 봉사를 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 쉬운 봉사활동에 걸려 마냥 좋아했던 시절이 아닌 힘든 봉사여도 열심히 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더 값지고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꾸준히 봉사할 기회는 많지 않지만 이번 하계방학 때 한 봉사활동이 나에게 정말 큰 경험이었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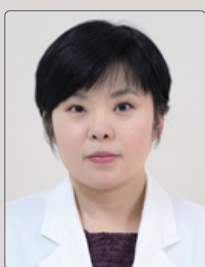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추억의 만화영화가 몇 작품씩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 당시 인기 있는 만화영화 중 “요술공주 세리”를 기억하십니까?

♪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 별 나라에서 지구로 찾아왔어요~ 세리~ 세리~♪

필자도 아직까지 주제곡이 생각 날 정도로 인기 있었던 만화였습니다.

이번 주 토크톡 인터뷰는 학창시절 별명이 '요술공주 세리'로 불렸다고 하는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짧은 인터뷰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 **본인 소개?** 7년 1월생 개띠, 요가학원을 다니다 학원 원장의 소개로 108번의 만남 후 2008년 결혼에 성공, 2살 아들과 압구정동에 거주하고 있고, 둘째 계획을 놓고 108번회를 하고 있는 혈액종양내과 김도연입니다.
- **신랑 아침식사는 어떻게 챙겨 주시는지?** 신랑 직장이 대화동이어서 출근길에 우리병원 직원식당에 들러 맛있게 해결합니다. ㅎㅎ
- **'암'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이 있다면?**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적당한 육류섭취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먹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 예전에는 가야금을 뜯었으나 요즘은 파란하늘을 보고 뭉게구름 사이로 따사한 햇살을 맞으며 마음속 힐링을 주문합니다.(요술공주 세리 맞죠? ㅋㅋ)
- **앞으로의 진료계획?** 경제적인 진료, 알찬진료, 아랫목에서 느낄 수 있는 포근하고 인정 많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무리?** 뉴스레터는 일상에 충실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간의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알 리 미

mbc 아이돌 육상·양궁 선수권대회 의료지원

일 시 : 9월3일 9시 30분 ~ 23시 | 장 소 : 고양종합운동장 & 고양실내체육관

몽골 보건부차관 대표단 방문 일자 : 9월 5일

울란바트라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일시 : 9월 6일 14시 | 장소 : 제 2회의실

용정초등학교 병원체험 프로그램 일시 : 9월 6일 9시 ~ 12시

